

2013 봄호



환우의 쾌유를 우선으로 하는 병원
마음까지 치유하는 생명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부산가톨릭의료원
BUSAN ST. MARY'S HOSPITAL

부산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오늘은 내가

오 복 자 수녀



오늘은 내가
사랑하고 사랑 받으리라고
주어진 날이다.

오늘에
사랑을 빼고 나면
의미 없는 시간의 묶음 되나

오늘에 사랑을 담고 나면
햇살 같은 밝은 날 된다.

오늘은 내가
사랑하고
더 사랑하여

완전하게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사랑하라고 주어진 날이다.

오늘이 사랑의 날 될 때
오늘은 내게 살아있는 날 된다.

발행일 : 2013년 5월 3일 | 발행인 : 김성원 | 편집인 : 유영순

발행처 : 부산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 232번지 25-14 T. 051-933-7133 F. 051-932-8636

편집 · 인쇄 : 동문인쇄 T. 051-469-8963



2013 봄호



환우의 쾌유를 우선으로 하는 병원
마음까지 치유하는 생명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CONTENTS

권두시	02	오늘은 내가 오복자 수녀
권두언	04	완화의료 소식지를 통한 만남의 장 김준현 진료부원장
	05	완화의료에 대한 궁금증 김선경 과장 (혈액종양내과)
팀원들의 이야기	06	부산성모병원 적응기 최은경 간호사 (101병동)
	07	호스피스병동 실습보고서 정창현 (인제대 본과 4학년)
환자와 가족의 사랑이야기	08	이제는 갈 때가 왔는가보다 故 김영배님
	09	내가 기다리는 봄 최영옥 (故 김영춘님 부인)
	10	사랑하는 김수영씨 추금녀 (아내)
	11	보고싶은 내 딸 지우야 변희창 (아버지)
	14	사랑하는 아빠 유진 (큰딸)
	15	여보 당신을 제일 사랑했던 남편

호스피스란 무엇인가?

호스피스는 죽음을 앞둔 말기환자와 그 가족을 사랑으로 돌보는 행위로 환자가 남은 여생동안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 순간을 편안하게 맞이하도록 신체적 · 정서적 · 사회적 · 영적으로 도우며, 사별 가족의 고통과 슬픔을 경감시키기 위한 총체적인 돌봄이다.

“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환자가 남은 여생을
편안하고 인간답게 마감하고
가족의 슬픔을 줄여주는
사랑의 영적 돌봄 의료 ”



진료부원장 **김준현** (라파엘)

완화의료 소식지를 통한 만남의 장

의료의 발전으로 암이 완치되거나 생존율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사망원인이 가장 높은 것은 암 관련 질환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매년 7만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소중한 생을 마감하는 시기에 있는 말기 암환자와 그 가족들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환자와 가족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는 환자가 남은여생을 편안하고 인간답게 마감하고 가족의 슬픔을 줄여주는 사랑의 영적 돌봄 의료이며, 다른 질병의 치료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의료의 한

분야인 것입니다.

얼마 전 저는 소중한 친구를 본원 호스피스-완화의료 센터에서 영원한 작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병실에서 처음 만났을 때는 환자 뿐 아니라 가족과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녀님을 포함한 팀원들과의 만남 이후 친구는 식사도 하였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주고 받을 수 있었으며,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에 오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였고 가족들도 훨씬 덜 힘들어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저에게 전했습니다. 우리 부산성모병원은 종교병원으로의 사명과 의무로서 개원초기부터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호스피스-완화의료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제는 지역사회 뿐 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신뢰받는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진료를 위한 학술활동 뿐만 아니라 병원장님 이하 많은 분의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환자와 가족을 돌보는 센터장, 팀장, 진료의사, 간호사 및 봉사자와 팀원들의 사명감과 노력에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창간호에 이어 2013년의 춘계 소식지가 환자와 가족, 완화의료 팀원들과 병원직원, 그리고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심을 가진 모든 분들께 유익하고 즐거운 만남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화의료에 대한 궁금증

Q&A로 본 주요문답



김선경 과장(혈액종양내과)

1. 말기암환자는 어떤 환자를 의미하나요?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몇 개월 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암환자를 의미합니다.

2. 말기암환자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치료가 없는 건가요?

항암치료는 하지 않더라도 환자를 힘들게 하는 증상에 대한 치료는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3. 말기암환자 완화의료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통증과 증상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통하여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입니다.

4. 환자에게 말기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을까요?

네, 알려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암환자들은 자신의 현재 상태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 알고 싶어 하고, 환자는 자신의 상태에 대해 정확히 알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환자분에게 남은 생을 잘 정리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드린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 국내의 한 연구에 의하면 가족은 환자에게 말기암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꺼리하는 경우라도 환자는 거의 대부분 사실을 통고해 주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 언제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야 하나요?

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요법 등을 시행했으나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말기암 환자로 통증완화 및 증상조절이 필요하신 경우에 오시면 됩니다.

6.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어떤 치료를 해 주나요?

환자를 힘들게 하는 암 관련 증상들을 모두 치료하게 됩니다. 통증, 구토, 호흡곤란, 복수, 불면, 섬망 등의 증상들을 적극적으로 조절합니다.

7. 보호자 없이 입원이 가능한가요?

입원하는 환자의 대부분이 혼자 거동이 어려우므로 자가 수행도가 낮은 경우가 많아 보호자가 계셔야 합니다. 가족이 없거나 간병이 어려운 경우에는 간병인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8.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다면 입원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환자 상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우선 한 달간의 입원이 가능합니다. 한 달 후 환자 상태를 보고 의료진과 가족의 상의 후 입원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9. 호스피스 병동은 죽음을 기다리는 곳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환자분들의 통증과 다른 불편한 증상을 최소화하여 여생을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지내실 수 있는 곳입니다. 음악, 미술, 명상 등과 같은 여러 요법 및 자원 봉사자들의 이미용, 목욕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같이 참여하실 수 있으며, 정서적, 사회적, 영적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을 원합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현재 계시는 병원 주치의의 소견서 및 영상자료를 가지고 본원 혈액종양내과 혹은 가정의학과 외래에 방문하셔서 입원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후 입원 결정이 내려지면 호스피스 병동 면담 및 안내를 받으신 후 입원하시면 됩니다.

부산성모병원 적응기



101병동(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간호사 | 최은경

●●● 하늘을 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으로 천사의 날개를 달고, 부산성모병원 10층 간호사로 입사한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모르는 것이 많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이것을 알면 저것을 모르고, 마음은 무척 잘하고 싶었으나 아는 것이 부족하여 무엇 이던지 선배님들께 물어보는 아는 것 없는 간호사였습니다. 나이팅게일 선서를 한 후 정말 훌륭한 간호사가 되겠다고 다짐했으나 막상 임상에서 일하면서 어려움이 따르면 금방 무너지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존재 이유가 곧 환자들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선종하신 보호자들이 방문해서 “그 동안 고마웠어요.” 하실 때 가슴이 벅차 멍 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호스피스 간호사로서 앞으로의 길은 아름답고 따스하기 보다는 험난하고 어려운 시간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느님이 주신 좋은 달란트인 간호사의 길을 감사하고,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에 또한 감사하며, 오늘 이 시간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 환자들을 보면서 그들의 집을 같이 들고 가도록 돕겠습니다.

처음 간호사가 되겠다고 다짐했던 사명감에 힘든 일이 있어도 아름답게 승화해

가는 숭고한 마음으로 살겠다고 자주 다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은 정말 힘들어서 울었고, 어느 날은 보람되어 웃었는데 하루 이를 지나면서 선배들에게 묻는 횟수가 줄어들고, 환자의 어려움을 받았을 때 자신 있게 말하는 제 모습에 가끔은 웃음이 나옵니다.

매일 아침 환자 인계를 받고, 라운딩을 위해 메디케이션 카트를 밀고, 병실에 들어서면 뜨거운 힘이 솟아오릅니다. 이 힘은 간호사의 가운을 입고 전문인으로써 조금씩 나아가는 소명감에서 생기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힘차게 제 자신을 일깨우며 오늘도 삶과 죽음에서 하느님의 곁으로 가시는 길목에 있는 환자의 손을 잡고 ‘혼자가 아니십니다.’ 라고 외치며 그들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저를 기다리는 우리병동 환자들을 위해 힘이 되는 삶을 살고 싶고 노력하는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클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호스피스 실습보고서



의제대 본과 4학년 | 정창현

●●● 처음 호스피스 실습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곳인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제대로 된 개념조차 없는 상태였다. 실상 실습 전날까지도 기본 개념이 없었고, 병동 회진을 돌 때도 약간 의아해했었다. 첫날 병동 회진 후 교수님과 수녀님의 면담을 통해 호스피스가 어떤 곳인지 무엇을 하는지 환자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곳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

또한 부산성모병원 호스피스만의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각종 프로그램과 병동간호를 이해하였고, 어떤 방면에서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알게 되었다. 특히 수녀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돌봄은 단순히 종교적인 마음만으로 환자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환자를 대하는 프로그램이었다.

환자를 방문하여 한명씩 기도 해드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환자들이 매우 편안해하고 온화한 웃음을 짓고 있을 때 나도 모르게 행복함을 느낄 수 있었다. 장례식장 방문도 기억에 남는 시간이었다. 호스피스병동에 있었던 환자일 수도, 아니었을 수도 있으나 한 사람이 가족 곁을 떠났다는 것만으로 슬픔을 같이 나누는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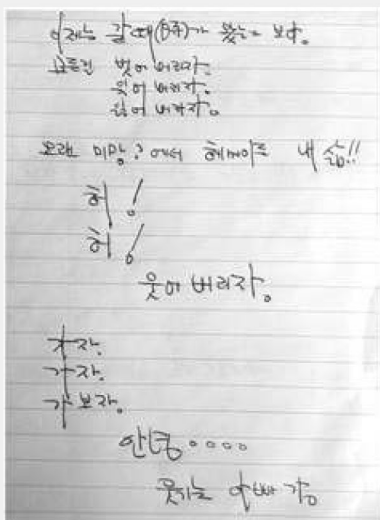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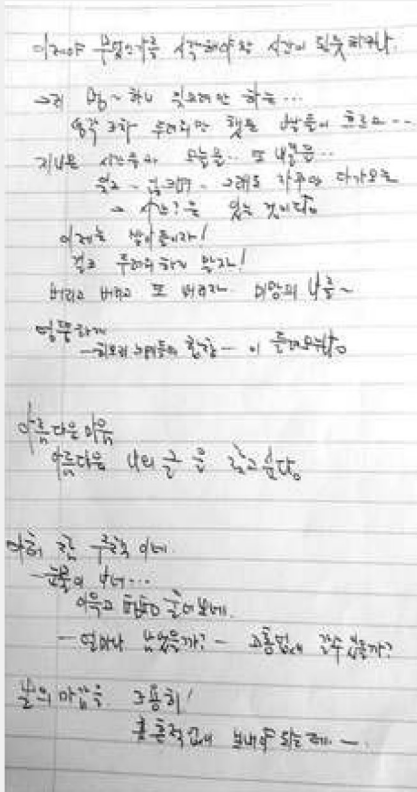
습이 인상적이었다. 이런 방문을 통해 의사로서의 본분과 책임감도 생각할 수 있었고 앞으로 환자를 대함에 있어서의 기본을 되짚어 보았다.

배정받은 환자와의 면담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남겨진 가족에 대한 걱정 등이 있지만 밝은 표정과 마음가짐을 가지려 하는 것이 가슴으로 느껴졌다. 환자 뿐 아니라 보호자와의 면담에서도 위와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 희망을 놓지 않으려는 의지가 보였다.

비록 3일간의 짧은 실습이고 경험이지만 호스피스에 대한 개념만큼은 완전히 익힐 수 있었는데 시행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시스템 등이 인지를 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무엇보다도 병동환자를 통해 얻은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환자를 대할 때 인간관계가 제일 먼저 성립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었다. 저희를 잘 지도해 주신 교수님, 수녀님, 사회복지사님, 간호사선생님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갈 때가 왔는가보다 故 김영배님



이제야 무엇인가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 된듯하구나.
그저 멍~ 하니 잊으려만 하는
생각조차 두려워만 했던 나날들이 흐르고..
지나온 시간들과 오늘을 .. 또 내일을..
잊고.. 잃으며.. 그래도 자꾸만 다가오는
그 시간? 은 있는 것이다.
이제는 받아들이자!
결코 두려워하지 말자!
버리고, 버리고 또 버리자. 미망의 나를~
엄뚱하게
-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 이 들려오누나.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나의 글을 찾고 싶다.

아허 참 주책이네.
- 눈물이 나네 ...
이윽고 평평 울어보네.
- 얼마나 남았을까? - 고통 없이 갈 수 있을까?
생의 마감은 조용히!
흔적 없이 보내야 되는 데,...

이제는 갈 때(時)가 왔는가 보다.
모든 걸 벗어버리자.
잊어버리자.
잃어버리자.
오랜 미망?에서 헤메이든 내 삶!!
히!
히!
웃어버리자.
가자.
가자.
가보자.
안녕
웃기는 아빠가

환우의 따님께서 아버님 임종하신 후 소지품에서 발견한 아버지의 글 故 김영배님 (2013년 3월 6일 선종)

내가 기다리는 봄

최영옥(고 김영춘님 부인)



지난 여름의 끝자락, 산과 들의 초록물결은 가을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에게는 여름에서 바로 겨울이 건너왔다. 추석 무렵 남편에게 재발되었던 위암증세가 갑자기 악화되어 폐렴으로 고열이 그치질 않았다. 정기검진을 받던 서울에 병원은 병실이 없어서 응급실과 협력병원을 전전하면서 폐렴은 어느 정도 좋아졌다. 그러나 담당의사는 위암이 복막으로 전이 되어 장이 굳어져 남편의 생존은 시한부라고 말했다. 잦은 통증으로 인절부절 하던 중 인디넷 검색으로 용호동 부산성모병원 '완화의료센터'를 찾게 되었다. 그 사실을 남편은 몰랐기에 너무나 죄스러웠다. '호스피스' 병동의 가정의학과 의사와 간호사들은 역시 일반병동의 의료진과는 구별되었다. 언제나 가족처럼 환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돌봐 주었다. 사회 복지사의 다양한 프로그램 섭외로 환자와 가족들에게 요일마다 피아노, 금관악기 연주와 음악회, 무용, 아로마 향의 명상 치료 등을 제공했다. 다양하고 질 높은 돌봄에 더없이 만족했고 고마웠다. 호스피스병동만을 돌아보시는 담당 수녀님은 매일 아침 환자들에게 문안차 와서 의료진과 가족이 환자에게 직접 말 못하는 부분을 환자의 상태를 보가면서 조금씩 마음을 정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대화로서 풀어 주었다. 세상 떠나기 5일전에 남편은 울면서 '유언장'을 썼다.

두 달간의 '호스피스' 병동의 병상생활! 남편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다시 올 수 없는 소중한 행복한 시간들이었다.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영양제와 진통제만이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남편의 시한부 삶을 버티어주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주사판으로는 한계가 왔다. 산소 수치가 100에 가까워야 하는데 52로 떨어지던 날 밤, 남편은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힌없는 신음소리만으로 호소했다. 당황해서 간호사를 불렀고, 남편은 작은 산소 호흡기에 의지하여 임종실로 밤 1시 30분에 옮겼다. 운명의 시간이 너무나 갑작스러워 담당의사도 회진 중에 울먹였고, 심장 박동은 자정을 넘길 때 점차 악화되었다. 25시간을 삶과 죽음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아이들과 내가 지켜보는 가운데, 2012년 11월 21일 신 새벽에 남편은 먼 길을 떠났다.

38년 전 어느 봄날 검은머리가 파뿌리 되도록 살자며 우리는 작은 쪽배에 함께 올랐었다. 그런데 그는 혼자 먼저 가버렸다. 같이 갈 수 없고 내가 대신 가줄 수 없는 먼 곳으로……, 사경을 헤매는 동안 남편과 내가 살아왔던 많은 얘기들을 들려줬다. '당신! 사랑해요, 고맙었어요'라고 울먹이면서, 마지막 인시말은 했지만, '유언장'보다도 남편의 마지막 한마디를 듣지 못한 것이 늘 안타까웠다.

지금은 오직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는 마음뿐이다. 2013년 1월 남편의 칠순 날, 며느리와 손자, 손녀의 손을 잡고 '정관'에 있는 추모관을 찾았다.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생일축하 노래를 부르면 "오늘 만이라도 보내고 가지 그랬어요." 하며 남편의 사진을 쓰다듬었다. 호수가 두껍게 얼어붙은 '정관' 신도시의 겨울 풍경은, 내 안에 녹지 않은 멀고 긴 겨울 강이었다. 그러나 견디고 기다리면 봄이 올 것이다. 그 옛날 어느 봄날에 남편과 함께 작은 배를 탔듯이 어느 날 남편은 배를 저어 나를 태우러 올 것이다. 그 날이 나의 봄이라. 나는 그 봄을 기다리며 오늘을 열심히 살기로 마음먹는다.

사랑하는 김수영씨

추금녀님 (아내)

당신이 떠난 지 벌써 8개월이나 되었어요.
오늘 부산성모병원 사별가족 모임에 왔습니다.
당신께 미사봉헌도 하고 꽃도 드렸어요.
정성이 가득 담긴 맛있는 점심식사를 하였습니다.
부산성모병원에서 지낸 22일 동안 수녀님과 간호사님들의 보살핌으로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았던 우리 남편 김수영씨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당신
36년 동안 자식 낳고 살아 주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이렇게 살다 가는 것을...
일을 좋아하는 당신께 감사를 드려요.
당신 없는 삶이 많이 힘이 드네요.
하지만 하느님 아버지께 경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기쁘게 섬기면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갈게요.
하늘에 계신 당신 사랑합니다. 영원히 사랑 하겠어요.



보고싶은 내딸 지우야

변희창 (아버지)

오늘 네가 편안히 하늘나라 가도록 가교 역할을 해준
부산성모병원에 왔다.
신부님, 수녀님, 간호사님들, 자원봉사자님들과 사별가족 행사를 했다.
너에 대한 좋은 생각과 추억을 되새기면서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단다.
지우가 우리 곁을 떠난 지도 두 달이 되어가는구나.
하느님 나라에서 잘 지내고 있겠지?
그곳에는 아픔이나 고통도 없을 테니까. 그렇지?
보고 싶다.
하지만 만날 수 없으니... 어떡하지! 참아야지.
하늘나라에서 엄마를 잘 지켜줘.
이다음에 우리 만나면 더 사랑하고,
더 행복하게 지내자.
비록 지금은 우리 곁을 떠났지만
지우는 영원히 하나 밖에 없는 착하고 사랑스런 내 딸이다.
아빠도 엄마를 아끼고 더 사랑할 테니 잘 지켜봐 주라 그리고 잘 지내라



하늘에 계신 어머니께

못날 딸 경화 드림

엄마. 엄마. 부르면 언제나 그 자리에서 답해주고 있을 것 같은데...

올해 가을 하늘은 유난히도 푸르고 시리게 보이네요.

저 푸른 하늘 어느 곳에서 내려 보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우리엄마!

문득 문득 솟아나는 그리움은 눈물로도 사거리 들지 않습니다.

병원에 오면 어서 가라면서도 가는 모습 눈에서 멀어질까 끝까지 따라오는

엄마의 눈길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부산성모병원 사별가족 모임에 왔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보낸 많은 사람들이 모여 고이 간직한 슬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엄마 보고 있어요.

옆에 지영이도 있고, 우리는 엄마 걱정하지 않아도 서로 의지하며 잘 살테니

그곳에선 모든 걱정, 고통 내려놓고 편안하시길 기도 합니다.

가시기 전에도 제 건강 때문에 가슴 아파 하던 엄마 모습,

생각하면 할수록 엄마 모습, 마음이 아립니다.

제가 수술하고 아파할 때, 치료받을 때, 항상 엄마가 곁에 계셨는데

저는 제대로 엄마 옆에 있지도 못했네요.

두고두고 후회하여도 돌이킬 수 없는 날들입니다.

눈 감으실 때까지 걱정스런 엄마 눈길 어찌 잊을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못난 딸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여보

당신을 제일 사랑했던 남편

여보! 벌써 날씨가 쌀쌀해지는군요.

어제 밤, 잠자리에서 당신을 생각하며, 밤잠을 설치고,
설레는 마음으로 부산성모병원 베네딕도홀 사별가족 모임에 참석했어요.
한 달 몇 일전의 당신 모습을 생각하면

정말 당신이 영원히 내 곁을 떠나고 말았는가?

아니, 잠깐 어디 갔다 금세라도 올 것 같은 생각이라요.

여보!

세상 모든 것이 싫어지지만 좀 더 용기 내어
당신이 못다 이룬 꿈을 꼭 내가 이루고 가야 할 텐데 건강이...

여보!

이젠 모든 걸 내려놓고, 좋은 세상 가서 행복하게 지내기를 정말 바라요.
이 생애 못 다 이룬 당신의 꿈,

늦으나마 내 몫으로 생각하고,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다 갈게요.

여보, 사랑해! 아니 내 영원히 당신을 사랑할게요.

모든 걸 잊고 편안한 사후가 되도록 항상 기도한답니다.

난 아직 당신이 없는 것이 실감나지 않아 헤매고 있단요.

시간이 약이라는데 당신을 만날 그 날 기다리면서 살아보겠소.

요 표



복지사 영적 돌봄



NEWS (완화의료소식)

■ 1월 특강 : “호스피스 환자와 가족상담”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이영은 교수님을 모시고, 직원 및 내·외부 고객 170여명이 참석하여 호스피스 환자와 가족 상담에 대한 전문적이고 실제적인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 병자의 날 행사

2월 11일 세계병자의 날을 기념하여 본원에서는 환우와 보호자들을 위한 음악회를 개최하였다. 음악 발표회 출연자들 중 일부는 본 완화의료센터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로 색소폰연주, 오카리나 연주, 장고춤 등을 선보여 한층 더 행사를 빛낼 수 있었다.

또한, 본 센터에서는 환우 앞에서 그들을 위한 기도, 병동의 간호사들이 마음을 담아 준비한 꽃, 원목실에서 준 개인 타월을 선물하였다. 1년 365일이 그러하지만 이날은 환우들에게는 무척이나 따뜻한 위로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 직원소진예방 : 명상을 통한 힐링

명상요법으로 교대근무, 업무에 대한 부담도 크지만 시간을 쪼개어 가진 체험이 무척 좋았다고 한다.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강하여 팀원 소진 예방에 노력할 계획이다.



NEWS (완화의료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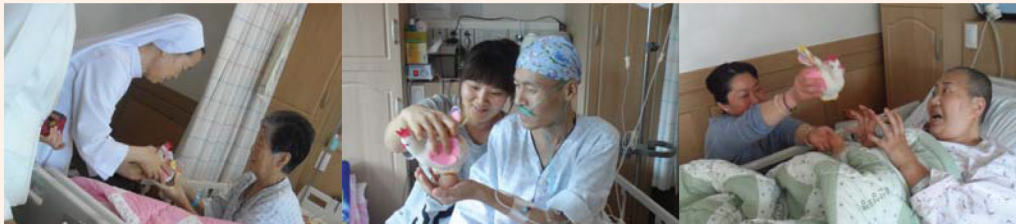
■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자원봉사자 교육으로 애니어그램을 실시하였는데 자신을 알고 남을 아는 시간이 되었다.



■ 부활행사

예수님 부활 대축일 환우들과 함께 기뻐하기 위해 부활계란을 나누었다. 본 센터에서는 실장갑으로 암탉도 아니고, 수탉도 아닌 것이 계란을 품는 닭을 만들어 환우들에게 제공하였다. 닭이 알 낳는 모습을 보고 놀라며 신기해하는 유쾌한 시간을 가졌다.



■ 부활맞이 특식 뷔페

부활 후 환자 및 보호자들에게 특식제공을 위한 시간을 마련하였다. 집에서 먹는 나물, 시락국 등 평범한 일상이 그리운 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풍성한 점심시간이 되었다.



●● 완화의료센터 외래시간표

	월	화	수	목	금	토
오전	정현주 김선경	김선경	정현주 김선경	정현주 김선경	정현주 김선경	정현주(1,3,5주) 김선경(2,4주)
오후	정현주 김선경	김선경	정현주	김선경	정현주 김선경	

■ 정현주과장 외래 진료 051) 933-7971 * 단 가정의학과 외래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진료함
 ■ 김선경과장 외래 진료 051) 933-7243

- 문의 및 예약안내
- 병 원 대 표 전 화 TEL: 933-7114
 - 완화의료센터상담 TEL: 933-7133
 - 완화의료센터병동 TEL: 933-7100
 - 추 모 원 TEL: 933-7480, 7129

●● 오시는 길



- 서면방면 20, 24번
- 동래방면 131번
- 마을버스 남구 2, 2-1, 8번
- 부산역방면 22, 27번
- 해운대방면 39번

부산성모병원 정류소 하차 (셔틀버스 운행)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 232번길 25-14
 TEL: 051) 933-7958 FAX: 051) 933-8600